Catholic
주간주보

제1318호
2024년 6월 9일(나해)

연중 제10주일

말씀그림 | **김 아녜스 요안나**

입당송 시편 27(26),1-2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제1독서 창세 3,9-15

화답송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 7ㄴㄷ)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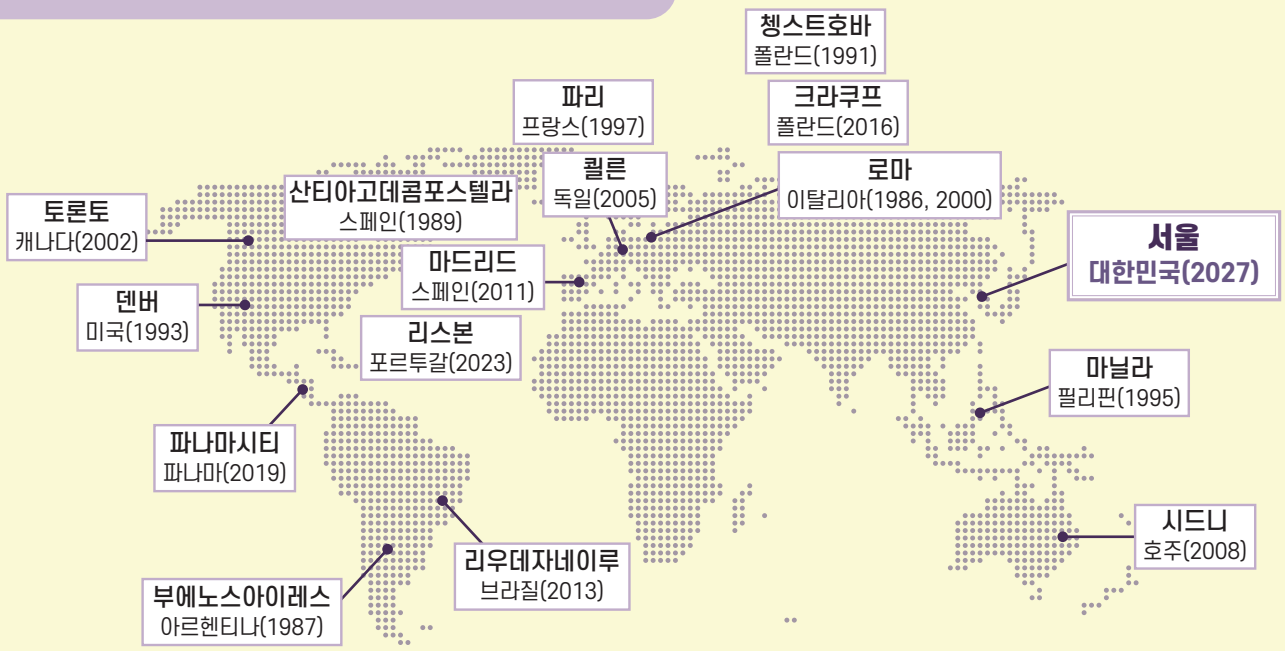
제2독서 2코린 4,13—5,1

복음환호송 요한 12,31-3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복음 마르 3,20-35

영성체송 시편 18(17),3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세계지도로 보는 역대 WYD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향한 여정이 시작 되었습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어떤 여정을 걷고 있는지 **3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홍웅기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찬미 예수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2027년 WYD가 열린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WYD는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세계 청(소)년 대회를 뜻하는 말로써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개최지인 나라에 방문하여 친교를 나누고, 함께 신앙 활동을 하는 뜻깊은 주간입니다. 또한 교황님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주교님들, 신부님들도 함께 대회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가르침을 주시죠.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는 뱀과 마귀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마귀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는다,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모함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귀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의 나라 역시 자기들끼리 싸우며 갈라서면 끝장이다.' 라고 얘기하시며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에게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을 겪게 됩니다. 금전적인 유혹,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이간질을 하고 싶은 유혹, 누군가 피해를 보더라도 나는 좀 더 편한 것을 선택하려는 유혹 등등...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은 신자로서도, 도덕적으로서도 잘못된 일입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가득찬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 해야지.' 라는 것도 악이며 유혹입니다. 가톨릭에서 중요한 건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선택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는 오늘 복음 말씀처럼 머리로만 아는게 아닌 실천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독서와 복음에 나오는 뱀과 마귀처럼 부정한 것을 선택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삶이 아닌, 내가 주체적으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삶,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행동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WYD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올바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행사이며, 어떻게 세상 안에서 신앙인으로써 올바로 살아갈까?를 끊임 없이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7년 서울 WYD를 통해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도덕적,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길 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주님이 머문 자리

주님,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이 제 눈엔 경이롭기만 합니다.

저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최유진 스텔라 / 길음동 성당]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느낀 순간을 사진과 글에 담아 보내주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친구 추가 후 전송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84년 구원의 특별 성년을 젊은이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로마로 초대해주시며 시작된 세계 청년대회(WYD)는 3-4년을 주기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41번째 세계청년대회**가 바로 여기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Q. 준비위원회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김수지
가브리엘라
발산동성당

서울WYD를 잘 준비하기 위해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 WYD의 방향성을 잡는 기초연구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청(소)년 사목에 관련된 책을 읽고, 때로는 비판, 때로는 걱정을 나누기도 하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WYD의 중요가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WYD는 바로 우리 청년에 의해, 청년을 위해 진행되는 행사이니 만큼 우리 청년들의 참여와 역할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WYD를 통해 한국의 모든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유대하며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젊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거쳐가는 세월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젊음은 모든 사람, 세대의 보물입니다. 젊음이란 보물에는 언제나 희망이 속해 있으며, 이 희망은 언제나 미래로 이어지는 '미래의 행복'에 대한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미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행복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인생의 특별한 시기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인생이 완전한 가치와 온전한 의미를 지니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젊음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서 드러나는 보물입니다. 이 물음을 갖고 그리스도 앞에 모여 저마다의 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1985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강론에서

응답하라 가톨릭 교리

독일 베르그루엔 미술관에 소장 중인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Q. '예수 성심'이란 무엇인가요?

'예수 성심'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신비와 수난과 죽음,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 등을 통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인간 창조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외아들을 세상에 파견하고 수난하고 죽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성심은 성체성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당신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시고 영원히 살리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이 성체성사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 가톨릭 교리서

Q. '예수 성심'은 언제부터 공경하게 되었나요?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12세기 무렵 성 안셀모, 성 보나벤투라 등을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시작되었어요.

17세기 **공적**으로 시작됐으며, 1672년 10월 20일 성 에우데스가 교회 최초로 예수 성심 축일 미사를 봉헌했어요. 이후 성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수녀를 통해 예수 성심 공경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세계적으로 보급됐어요. 여러 차례 환시에서 예수님은 예수 성심 축일을 제정하고 예수 성심 금요일과 성시간을 장려하라는 임무를 주셨다고 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부터 1873년 비오 9세 교황에 의해 예수 성심 대축일을 기념해 오고 있어요.

- 가톨릭 신문 제3346호 / 9면

잘츠부르크 성 샤를 보로메 교회에 소장 중인 '예수 성심'. 출처 위키미디어

ICPE Jesus 시그널피정 4차

때 7월 6일(토)~7일(일)
대상 가톨릭 미혼청년 만35~45세
장소 성 앵베르 센터(은평구 연서로46길 35)
문의 010-9271-9114, 카카오톡 플러스 "ICPE" 채팅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부서원 모집

내용 주님의 도구로서 청년부와 함께할 부서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 밴드 유빌라떼, 주보편집부, 홍보부, 번역부
지원 문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02-762-5071~2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전화 : 02) 762-5071, 2/ 이메일 : mail@2030.or.kr/ 홈페이지 : www.2030.or.kr/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인쇄 : 가톨릭출판사